

저자 (Authors)	서영교 Seo, Young-kyo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38) , 2016.12, 115-146(32 pages) SILLASAHAKPO (38) , 2016.12, 115-146(32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5325
APA Style	서영교 (2016). 신라의 통일전쟁과 . 신라사학보(38), 115-14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7 16:1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통일전쟁과 倭

서영교*

- | | |
|---------------------|----------------------|
| I. 머리말 | IV. 倭의 백제부흥전쟁 원조 |
| II. 金春秋의 倭國 방문과 귀국 | V. 白村江 전쟁 |
| III. 唐의 倭使 감금과 전쟁개입 | VI. 맺음말: 고구려 - 왜의 連和 |

【국문초록】

7세기 중반 동아시아에서 쿠데타가 연이어 일어났다. 642년 연개소문은 고구려 왕과 귀족 150명을 죽이고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하였고, 그해 백제 의자왕도 친위쿠데타를 통해 친족들을 추방하고 권력을 잡았다. 645년 왜국에서 中大兄皇子와 中臣鎌族이 蘇我氏를 타도하고 실권을 쥐었다.

642년 연개소문을 만난 김춘추는 고구려와 군사협상에 실패했다. 3년 후 왜국에 大化정권이 들어서자 또다시 시도를 했다. 그러나 647년 정월 신라에서 비담의 난이 일어나 왜국에서 급히 귀국해야 했다. 김춘추는 난을 진압한 김유신과 함께 정권을 접수했다.

동아시아 각국에 당태종, 연개소문, 의자왕, 中大兄皇子, 김춘추로 대표되는 독재적인 정권이 들어섰다.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가운데 각국 간의 공수동맹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승했다.

648년 김춘추는 入唐하여 당태종을 만났고, 두 나라 사이의 나당동맹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는 귀국 길에 고구려군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이듬해 당태종이 죽어 동맹은 수포로 돌아갔다.

* 중원대 한국학과 교수

카리스마의 소유자가 사라지고 유약한 당고종이 그 자리를 잇자 서돌궐이 재통일되었다. 당과 서돌궐의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고구려와 백제 양면 공격을 받던 신라는 그 결과에 따라 국운이 좌우될 터였다. 657년 蘇定方이 서돌궐을 격파했고, 659년 왜국사신이 도착한 그때 당의 나당동맹결행이 결정되었다. 倭使는 감금되었다.

660년 7월 당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듬해 7월 평양을 공격하자 왜국은 위기에 휩싸인다. 당의 수군전력에 혁명이 있었다. 660년 7월 당수군은 금강에 상륙하여 의자왕 등을 포로로 잡고 단 10일 만에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어 661년 7월 당수군은 대동강에 상륙하여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포위했다.

앞서 백제가 왜국에 구원을 요청했고, 출병을 결정한 齊明天皇은 661년 1월 오사카에서 九州의 筑紫(후쿠오카)를 향해 출항한다. 그녀는 瀬戶內海 여러 지역에 들러 정발을 독려한 것 같다. 5월 9일 그녀는 朝倉 행궁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출병준비를 하다가 7월 24일 급사한다. 당과의 전쟁이라는 부담감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다.

中大兄皇子가 天智天皇으로 즉위했다. 天智는 661년 9월에 병력 5천을 백제에 파병하였다. 이듬해인 662년 1월에 대량의 군수품이 갔고, 이어 5월에 170척의 배에 병력과 물자를 실어 보냈다. 왜의 전폭적 원조는 효과를 봤다. 백제부흥군의 세력은 점점 강해졌고, 웅진부성에 갇힌 당군 1만은 언제 굶어죽거나 포로가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662년 7월에 나당연합군이 신라에서 웅진부성에 이르는 보급로를 뚫었고, 당조정이 백제에 병력 증파를 결정했다. 663년 2월 신라가 왜에서 백제로 향하는 해로 병참선인 백제 남해안 4개주를 황폐화시키고, 德安(논산) 등의 중요 지역을 빼앗았다.

다음 달인 3월 天智는 왜병 2만 7천을 백제로 파병했다. 하지만 신라가 주요항로 기착지 배후지를 이미 황폐화시켜 현지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다. 주류성으로 행군이 지체되는 가운데 부흥군 내부에 정변이 일어났다.

663년 5월 백제왕자 풍장은 사령관 복신을 제거했다. 백제의 방어체계가 약화되자 신라는 주류성으로 곧장 진군할 것을 결정했다. 같은 달 당나라 장군 손인사가 이끄는 당나라 함대 170척이 덕물도에 도착했다. 663년 7월 17일에 신라군이 출정하였고, 웅진주(부성)에 도착하여 주둔하고 있던 당군과 합류했다. 8월 13일 주류성 앞에 도착한 신라육군은 白沙에 기병을 보내 상

륙을 위해 접안한 왜 선단을 몰아냈으며, 성문을 열고 나와 대치하고 있던 백제 왜 연합군을 격파하고 8월 17일 주류성을 포위했다.

663년 8월 28일 최후의 해전이 벌어졌고, 400척의 왜선이 화염에 휩싸여 바닷물을 붉게 물들었고, 9월 7일 주류성이 함락되면서 한반도에서 왜는 완전히 밀려났다. 백촌강 전쟁 후 백제는 사라졌고, 668년 고구려가 뒤를 이었다. 670년 신라가 동맹국이던 당과 전쟁을 시작했고, 7년을 끌었다.

645년부터 한반도와 만주에 전력을 투여했던 당은 31년 전쟁을 했다. 그 틈을 이용해 서쪽에서 흥기한 토번에게 실크로드 경영권을 상실했다. 당은 이후 150년간 토번과 전쟁을 한다. 의도하지 않은 국제상황의 변화는 통일 신라의 안착에 중요한 환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음모와 폭력으로 일관했던 당제국이었지만 서쪽에 발이 묶여 발해·신라·일본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문화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각 나라의 사절이 서로 분주하게 오갔고, 8세기 9세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문명권으로 자리를 잡았다.

주제어 : 金春秋, 中大兄, 中臣鎌足, 高向黑麻呂, 伊吉連博德, 齊明天皇, 蘇定方, 白村江, 百濟南畔

I. 머리말

삼국통일전쟁은 기간, 규모, 전력, 가담국가 종족의 수에 있어서도 전근대에 보기 드문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나를 넘을 때 마다 앞일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각 전쟁의 결과가 가져온 파장도 거대했다.

신라는 당과 손잡고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고, 백제부흥을 원조하며 직접 개입한 왜를 663년에 한반도에서 몰아냈으며,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670년 신라가 동맹국이던 당과 전쟁을 시작해 7년을 끌었다.

왜국의 통일전쟁 개입과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가 있었다. 어느 면에서 윤곽이 드러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정황이 명확하지 못하다. 그 원인은 한일 간의 역사시각 차이가 크다는데 있다. 일본 측에서는 大帝國 唐나라에 맞서는 東夷小帝國이라 하여 倭의 역할을 크게 과장했고, 한국 측에서는 여기에 맞서 왜의 역할을 축소시키려거나 무시했다.¹⁾

필자는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간과되었던 사항 등을 찾아내고 통일전쟁에서 왜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기간은 김춘추가 渡日한 646년 말에서 시작하여 왜가 백촌강에서 패배하여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난 663년 9월까지이다. 왜는 660년 촉발된 백제부흥전쟁에 개입하였다. 그것이 선택이든 아니든 간에 왜국은 국력을 기울여 전쟁을 수행했다. 수없이 많은 물자와 병력이 투입되었고, 패전으로 인한 재앙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고를 구성했다. 먼저 김춘추의 왜국 大化조정 방문과 귀국, 당시 시대적 潮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당의 통일전쟁 개입 결정과 왜의 遣唐使의 감금과 석방에 대해 고찰해 보고 단 10일만에 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당 수군 전력혁명에 대해 음미해 보았다. 그 다음으로 왜의 백제부흥군 원조와 그것이 당의 1차 평양성 패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나당연합군과 왜가 정면충돌한 백촌강 전쟁에 대해 다루

1) 今西龍, 《百濟史 研究》, 近澤書店, 1934 ;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1971 ; 森公章, 《白村江以後－國家危機と東アジア外交－》, 講談社, 1988 ;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문화사, 2005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 출판부, 2009 ; 관련 연구사를 다음 글에 정리한 바 있다. 徐榮教, <白江戰鬪와 新羅> 《歷史學報》, 226, 2015.

어 보았다.

기획발표논문이라 왜의 통일전쟁 개입과정과 결과를 일관된 시각으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Ⅱ. 金春秋의 倭國 방문과 귀국

645년 왜국에 신정권이 들어섰다. 中大兄皇子와 中臣鎌足이 주도하여 蘇我씨 本宗家が 타도되었다(乙巳의 변). 황극천황(642-645)은 동생에게 양위하여 孝德천황(재위 645-654)이 즉위하게 되었고, 中大兄이 太子가 되고 中臣鎌足이 內臣이 되었다. 연호를 大化라 하였다. 646년 9월 왜국이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왜국이) 小德 高向博士黑麻呂를 파견하여 新羅에게 質을 바치게 하라고 했다.²⁾

大化조정은 신라에서 비중 있는 인물의 訪日을 요구했던 것 같다. 金春秋가 그 임무를 맡았다. 그는 642년 8월 대야성이 함락되어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를 잃었다. 10월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그는 평양으로 향했다. 신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연금되기까지 했다. 646년 말에 김춘추는 왜국으로 출발했던 것 같다.³⁾ 이듬해 飛鳥에 도착했다.

大化 3年(647) 그해 … 新羅가 上臣 大阿漚 金春秋 등을 파견하고,

2) 《日本書紀》 卷25, 大化 2年(646) 9月 조,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

3)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392쪽.

博士小德 高向黑麻呂와 小山中 中臣連押熊을 보내오고, 孔雀 한쌍과 鸚鵡 한쌍을 來獻했다. 김춘추를 質로 삼았다. 김춘추는 용모(姿顏)가 아름답고 談笑를 잘했다.⁴⁾

김춘추는 倭의 遣新羅使 高向黑麻呂와 中臣連押熊과 함께 왜국으로 향했다. 中臣連押熊은 大化조정의 실력자 中臣鎌足の 친척이었다. 高向黑麻呂는 중국 유학생 출신이었다. 推古天皇16年(608)에 南淵請安과 함께 隋에 갔다.⁵⁾ 유학중인 推古天皇 26年(618)에는 隋가 滅亡하고 唐이 건국되었다. 舒明天皇 12年(640)에 32년의 중국생활을 마치고, 新羅使와 함께 귀국했다.⁶⁾ 김춘추는 동행한 高向黑麻呂를 통해 일본의 신정권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접했을 수도 있다.⁷⁾

中大兄皇子는 정권을 장악한 이후 천황에 즉위하지 않았다. 645년 6月14日、輕皇子가 孝德天皇으로 즉위했고, 中大兄皇子와 中臣鎌族이 실권을 잡았다. 형식적으로 권력이 천황중심으로 바뀌었다지만 새로운 황족권신의 등장이었다.

642년 고구려를 찾았던 김춘추는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세운 것을 보았다. 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었다. 다만 中大兄皇子의 경우 황극 천황의 아들로 혈통적으로 왕위계승 자격이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쿠데타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이번엔 신라였다. 647

4) 《日本書紀》 卷25, 大化 3년(647) 是歲 조, “... 新羅遣上臣大阿漭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 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 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顏善談笑.”

5) 《日本書紀》 推古天皇 16년 9月11日 조.

6) 《日本書紀》 舒明天皇 12년 10月11日 조.

7) 武田幸男, <新羅‘毗曇の亂’の一視覚>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平凡社, 1985, 244쪽. 武田은 김춘추의 渡日 목적이 원병에도 있었지만,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국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년 정월 金春秋가 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시기 신라에서 상대등 비담이 女王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다.⁸⁾ 김춘추가 비담의 난 직후에 渡日 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난을 전하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김춘추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⁹⁾

16년 정미는 선덕왕 말년이며, 진덕왕 원년이였다. 대신 비담과 염종 등은 여왕이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군사를 동원하여 폐위 시키려 하였다. 왕은 궁안에서 이들을 방어하였다. 비담 등은 明活城에 주둔하고 왕의 군사는 月城에 진을 친 채 10일 동안 공방전이 계속 되었으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김유신이 병사들에게 말했다:필자) ... 그리고 나서 그는 장졸들을 독려하여 분연 돌격하였다. 비담 등은 패하여 도망하였다. 유신은 그들을 추격하여 목을 베고 구족을 멸하였다.¹⁰⁾

비담 등이 선덕여왕을 강제로 폐위를 시키려했다. 여왕은 왕궁의 문을 걸어, 경산주둔 김유신 군대를 불러들였다. 비담의 군대는 명활산성에 김유신의 군대는 반월성에 진을 쳤다. 10일간의 공방전을 펼쳤다. 그 마지막 날 김유신이 비담의 군대를 격파했다.¹¹⁾

647년 정월 8일 선덕여왕이 사망했고, 여왕의 4촌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다. 정월 17일 반란 주모자인 비담·염종과 30인을 처형했다.¹²⁾ 신라의 내전과 그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왜국에 전달했을 것이고 김춘추는 곧장 귀국을 서둘렀을 것이다. 그는 시대에 무력했

8)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392쪽

9) 朱甫暉,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韓國學論集》 20, 1993, 41쪽.

10)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11) 《삼국사기》 권5, 선덕여왕 16년 정월 조, “十六年, 春正月, 毗曇·廉宗等, 謂女主不能善理, 因謀叛舉兵, 不克. 八日, 王薨. 諡曰善德, 葬于狼山.”

12) 《삼국사기》 권5, 진덕여왕 원년 정월 조, “元年, 正月十七日, 誅毗曇, 坐死者三十人.”

다. 왜로부터 원군은 얻지도 못했고, 향후 왜와 백제간의 관계 강화도 막을 수 없었다. 大化조정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648년 가을 경 김춘추는 당태종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탔다. 장안에 도착해 당태종을 만난 것은 648년 12월 7일이었다.¹³⁾ 직후 고구려 백제를 정벌하기 위한 둘 사이의 밀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전쟁의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졌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649년 김춘추는 귀국하는 길에 고구려 수군을 만나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했고, 직후 군사동맹을 약속 했던 당태종이 사망 소식을 들었다. 새로 등극한 황제 고종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중단시켰다.

642년 고구려, 647년 왜국, 648년 唐을 방문했지만 모든 것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지다가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만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救國의 일념으로 외국을 떠돌았다는 사실은 신라인들의 뇌리에 남았다.

불확실한 시대였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권력의 집중이 그것이다. 당은 이미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독재체제가 들어서 있었고, 세계최강의 군사력이 이를 떠받쳤다. 당의 팽창본성은 주변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¹⁴⁾ 642년 연개소문은 고구려 왕과 귀족 150명을 죽이고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하였고, 그해 백제 의자왕도 친위쿠테타를 통해 친족들을 추방하고 권력을 집중시켰다. 645년 왜국은 中大兄皇子와 中臣鎌族이 왜국의 실질적 통치자였던 蘇我씨를 타도하

13) 《資治通鑑》 卷199, 唐太宗 貞觀 22년(648) 12월 7일 조, “癸未, 新羅相金春秋及其子文王入見. 春秋, 眞德之弟也. 上以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春秋請改章服從中國, 內出冬服賜之.”

14) 朱甫墩, <7세기 羅唐關係의 始末> 《嶺南學》 20, 2011, 133쪽 참조.

고 실권을 잡았으며, 647년 신라에서 비담의 난을 진압한 김유신이 김춘추와 함께 권력 장치를 만들어냈다. 모두 정상적인 권력창출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대적 위기상황이 그것을 용인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각 나라는 몇 명이 전쟁을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전쟁을 더욱 가열화 시켰고, 전쟁의 규모를 더 광범위하고 더 거대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해 그들 사이의 동맹이 만들어졌다. 고구려, 왜, 백제를 잇는 남북 협력과 동서를 잇는 나당동맹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전자는 당의 팽창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고, 후자는 신라가 전자의 포위공격으로부터 살아 남기위해 당의 팽창본능을 이용한 것이다.

Ⅲ. 당의 倭使 감금과 전쟁 개입

649년 당태종이 죽고 어린 고종이 즉위했다. 그러자 651년 阿史那賀魯가 스스로 沙鉢羅可汗이라 선포하고 서돌궐 제국을 재통일했다. 이후 서돌궐과 당 사이에 해답 없는 전쟁이 7년간 지속되었다.¹⁵⁾ 당의 주력이 서쪽에 묶였고, 나당동맹 실행을 막았다.

657년에 가서 당과 서돌궐은 결전에 돌입했다. 당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었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았다. 그렇게 되면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협공에 몰려 멸망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657년 12월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을 가로지르는 천산산맥에 위치한

15)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 and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pp.279-280.

호수 이쉬쿨 부근에 당나라군대가 도착했다. 당의 장군 蘇定方(592~667)은 휘하의 중국인 장창보병과 함께 출진했다. 회흘 등 유목기병들과 현지에서 합류했다. 결전에서 당이 서돌궐을 격파했다.¹⁶⁾

서돌궐이 해체되자, 659년 4월 김춘추는 당에 사신을 보내 청병을 했다. 10월까지 당의 답신이 없어 왕은 수심에 잠겼다.

“왕이 조정에 앉아 있었다. 당에 군사를 청했지만 회보가 없어 왕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드러나 있었다.”¹⁷⁾

당의 파미르 고원을 넘어선 서역 지배는 안정적이지 못했다.¹⁸⁾ 659년부터 티벳 고원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토번은 당의 부용국인 토욕혼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¹⁹⁾ 이리함에도 당조정은 한반도에 군대와 병을 결정했다.²⁰⁾ 동시기에 왜국의 사신이 장안에 나타났다.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5年(659) 7月 戊寅 조의 내용은 이러하다.

秋 7月 戊寅 小錦下 坂合部連石布.大仙下 津守連吉祥을 唐國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陸道 奧蝦夷 男女 2인을 唐天子에게 보여주었다.

16) 《舊唐書》 卷83, 蘇定方전, “攢稍外向, 親領漢騎陣於北原. 賊先擊步軍, 三衝不入, 定方乘勢擊之, 賊遂大潰, 追奔三十里, 殺人馬數萬”

17) 《삼국사기》 권5, 태종무열왕 6년 10월 조.

18) 서영교, <蘇定方の 長槍步兵과 對西突厥 전투>《中國古中世史研究》 15, 2006.

19) 《敦煌本 吐蕃歷史文書》 <大事記年> 懸慶 4년(659) 조“大論東贊(녹동찬)이 토욕혼(阿豺 Aza)으로 나아갔다. 達延莽布支가 烏海의 東岱에서 당조의 (定)方과 교전하였다. 달연이 죽고 8만 무리가 1천에게 패하였다”王堯陳踐 譯註 1992, 146쪽. 정병준, <吐蕃의 吐谷渾 併합과 大非川 戰鬪 : 唐朝의 韓半島 政策과 關係하여> 《歷史學報》 218, 2013, 309~340쪽 참조.

20) 서영교, <황산벌 결전 직전의 국제정세> 《군사연구》 13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1, 109~132쪽.

<伊吉連博德書에서 말하기를 …… 10月 15日말 장안에 入京하였다. 29日말을 타고 낙양(東京)에 도착하였다. 天子가 東京에 있었다. 30日 天子가 相見하여 물었다. 日本國天皇은 平安하신가? 使人이 삼가 答하기를 天地合德하여 스스로 平安을 얻었습니다. …… 天子가 다시 말했다. 脫이 蝦夷身面の 異함을 보니 기쁘고 신기하다. 使人들은 멀리서 왔으니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물러가 관청에 머물도록 하라. 후에 다시 볼 것이다. 11月 1日.조정에서 冬至會가 있었다. 그날 천자를 다시 알현하였다. 입조한 諸蕃 가운데 倭客이 최고로 훌륭하였다. 그러나 뒤에 화재 때문에 더 이상 알현은 없었다. 12月 3日 韓智興의 시종인 西漢大麻呂가 우리 사신을 참언하였다. 사신들이 당조에 獲罪하여 流罪가 결정되었다. 먼저 智興을 3千里 밖으로 유배 보냈다. 사신 가운데 伊吉連博德이 상주하여 免罪되었다. 일이 끝난 뒤에 勅旨가 내려왔다. 國家가 來年에 반드신 海東을 정벌하러 간다. 너희들 倭客은 東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명하였다. 장안(西京)으로 옮겨 별도의 장소에 감금되었다. 문을 닫고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랫동안 고생하였다.²¹⁾

659년 7월에 왜국의 사절단이 당을 향해 출발했다. 사절단은 10월 15일 장안에 도착했다. 그러나 당고종이 낙양에 있어 그곳으로 향했다. 30일 당고종을 알현했다. 11월 1일 冬至會에서도 당고종을 보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1)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5년(659) 7월 戊寅《三》 조 “秋七月朔丙子朔戊寅. 遣小錦下坂合部連石布. 大仙下津守連吉祥. 使於唐國. 仍以陸道與蝦夷男女二人示唐天子. <伊吉連博德書曰. … 十月十五日乘驛入京. 廿九日. 馳到東京. 天子在東京. 卅日. 天子相見問訊之. 日本國天皇平安以不. 使人謹答. 天地合德自得平安. … 天子重曰. 脫見蝦夷身面之異. 極理喜怪. 使人遠來辛苦. 退在館裏. 後更相見. 十一月一日. 朝有冬至之會. 々日亦觀. 所朝諸蕃之中. 倭客最勝. 後由出火之亂. 棄而不復檢. 十二月三日. 韓智興兼人西漢大麻呂枉讒我客. 々等獲罪唐朝. 已決流罪. 前流智興於三千里之外. 客中有伊吉連博德奏. 因即免罪. 事了後. 勅旨. 國家來年必有海東之政. 汝等倭客不得東歸. 遂逗西京. 幽置別處. 閉戶防禁. 不許東西困苦經年.”

659년 말 왜국 사절은 당의 백제침공 결정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귀국하면 백제에 그 소식을 전달할 것이 확실했다. 12월 3일 倭使들에게 流罪가 결정되었다는 칙지가 내려왔다. “國家가 來年에 반드신 海東을 정벌하러 간다. 너희들 倭客은 東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명하였다.” 그들은 억류되었다.

왜와 백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백제 의자왕이 왜국 권력층과의 친분에 신경을 쓴 흔적이 正倉院 헌납목록인 《國家珍寶帳》에 보인다.

赤漆槻木廚子一口
右百濟國王義慈進於內大臣

백제 의자왕이 內大臣에게 적색 옷칠장을 선물했다고 한다. 內大臣은 7세기 중엽 왜왕권의 실세인 中臣鎌足이다. 그 호칭은 中臣鎌足이 대화개신 신정부 수립 후의 직위인 內臣에다가 天智 8년(669)에 받은 大臣의 위를 합친 것이다. 그의 사후의 호칭은 임종 시에 天智天皇으로부터 하사받은 藤原氏를 붙여 ‘藤原內大臣’으로 호칭하고 있다.²²⁾ 의자왕의 선물공세가 大化정권의 핵심인 中臣鎌足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660년 3월 10일 蘇定方이 백제정벌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²³⁾ 6월 거대한 唐船團이 바다를 가로질러 백제로 향했다. 《삼국유사》 권1,

22) 延敏洙, <日本正倉院의 百濟遺物과 그 歷史的 성격> 《國史館論叢》 108, 2006, 4쪽.

23) 《資治通鑑》 권200, 唐高宗 顯慶 5년 3월 조, “百濟恃高麗之援, 數侵新羅; 新羅王春秋上表求救. 辛亥, 以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神丘道行軍大總管, 帥左驍衛將軍劉伯英等水陸十萬以伐百濟. 以春秋爲嶠夷道行軍總管, 將新羅之衆, 與之合勢.”

태종춘추공 조에 인용한 鄉傳에 의하면 당군은 122,711명이고 배가 1,900척이라고 했다.

8월, 吐蕃의 祿東贊 其子 起政과 將兵을 파견하여 吐穀渾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吐穀渾이 內附하여 故하였다.

蘇定方은 軍을 이끌고 (산동반도 동쪽 끝) 成山에서 바다를 건너가니, 百濟군이 熊津江口에서 이를 막았다. 定方이 進擊여 이를 破하니, 百濟군 死者가 數千人이고, 나머지는 모두 潰走했다. 定方이 水陸으로 齊進하여, 곧바로 (사비)도성으로 나아갔다. (도성) 二十餘裏가 못 미친 지점에서, 百濟가 나라를 기울여 싸웠지만, 이를 大破하여, 죽인 사람이 萬餘人이었다. 추격하여 그 성곽으로 들어갔다. 百濟王 義慈와 太子 隆이 北境으로 도주하니, 定方이 나아가 其城을 포위하였다. 義慈의 次子인 泰가 自立하여 王이 되어, 帥衆으로서 固守하였다. 隆의 子 文思가 말하기를 “王과 太子가 모두 있는데, 숙부가 갑자기 軍사를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니 설사 땅을 물리친다고 하여도 우리부자는 반드시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을 넘어 항복하니 백성들이 모두 그를 좃았고 泰는 이를 막을 수 없었다. 定方이 軍士들에게 명하여 登城하여 깃발을 꽂게 하니, 泰는 窘迫하여 성문을 열고 명을 청하였다. 이에 義慈·隆 諸城主가 모두 항복하였다.²⁴⁾

위의 기록에서 吐蕃의 祿東贊이 그 아들 起政과 軍사들을 보내 吐穀渾을 공격하였다고 라고 하고 이어 蘇定方の 백제 멸망전쟁을 언

24) 《資治通鑑》 권200, 唐高宗 顯慶 5년 8월 조 “八月, 吐蕃祿東贊遣其子起政將兵擊吐穀渾, 以吐穀渾內附故也. 蘇定方引軍自成山濟海, 百濟據熊津江口以拒之. 定方進擊破之, 百濟死者數千人, 餘皆潰走. 定方水陸齊進, 直趣其都城. 未至二十餘裏, 百濟傾國來戰, 大破之, 殺萬餘人, 追奔, 入其郭. 百濟王義慈及太子隆逃於北境, 定方進圍其城; 義慈次子泰自立爲王, 帥衆固守. 隆子文思曰, 王與太子皆在, 而叔遽擁兵自王, 借使能卻唐兵, 我父子必不全矣. 遂師左右逾城來降, 百姓皆從之, 泰不能止. 定方命軍士登城立幟, 泰窘迫, 開門請命. 於是義慈·隆及諸城主皆降. 百濟故有五部, 分統三十七郡·二百城·七十六萬戶, 詔以其地置熊津等五都督府, 以其酋長爲都督·刺史”

급하고 있다. 司馬光은 蘇定方の 백제원정과 토번의 토욕혼 침공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 같다. 그리고 금강입구 전투에서 의자왕 항복까지 백제의 멸망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조에 그 과정이 보다 상세히 나와 있다. 660년 6월 21일에 신라의 태자 法敏(문무왕)이 인천의 덕적도에서 蘇定方을 맞이하였고 7월 10일로 사비성 공격의 날짜가 잡혔다. 하루 전인 9일에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대가 논산 황산벌에서 백제 계백 장군의 5천 결사대를 격파하고, 10일 蘇定方の 군대와 합류했다. 12일 백제 사비도성을 포위했고, 직전에 의자왕이 웅진으로 도망을 갔다. 13일에 백제 수뇌부의 내분이 발생하여 왕자 부여룡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항복하였다. 7월 18일 웅진방령으로 추정되는 彌植이 자신에게 의탁한 의자왕과 그 아들 효를 포박하고 蘇定方에게 데리고 가서 항복하였다. 당군이 백제에 상륙한지 딱 10일만이였다.

9월 3일 蘇定方은 부하인 劉仁願에게 당나라 군사 1만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거대한 선단을 이끌고 당나라로 철수했다. 그 1만이 남긴 배의 빈자리에는 백제의 국왕과 왕족 신료 93명과 백성 1만 2천으로 채워졌다.²⁵⁾ 백제 핵심 지배층을 뿌리를 뽑아 당으로 옮겨 미래의 저항 여지를 줄였다.

18만이 동원된 거대한 전쟁 프로젝트가 이토록 완벽하게 수행된 것은 인류역사상 보기 드물다. 그것은 수군 전력에 있어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군을 배에 태워 日本列島도 정벌

2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9월 조 九月三日, 郎將劉仁願, 以兵一萬人, 留鎮泗泚城, 王子仁泰與沙滄日原·級滄吉那, 以兵七千副之. 定方以百濟王及王族臣寮九十三人, 百姓一萬二千人, 自泗泚乘舡廻唐. 金仁問與沙滄儒敦·大奈麻中知等偕行”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54~57쪽 참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당 수군이 산동 萊州에서 고구려로 병력과 물자를 날랐던 것과 13만의 병력을 한꺼번에 배에 승선시켜 백제에 상륙시키는 작전은 선단의 규모와 운용기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직후 장안에 감금된 왜국의 사절단 伊吉連博德 등이 풀려났다. 당조정은 백제와 가까웠던 왜국 지배층에 대한 경고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庚申年(660) 8月 百濟가 평정된 이후 9月 12日에 왜국의 사절(客)을 本國으로 가게 해주었다. 19日 장안(西京)에서 출발하여 10月 16日 낙양(東京)에 도착하였다. 비로소 阿利麻 등 5人을 만날 수 있었다. 11月 1日. 將軍 蘇定方 등에게 잡힌 百濟王 이하 太子 隆 등 여러 왕자 13人 大佐平 沙宅千福과 國弁成 이하 37인, 모두 50人을 朝堂에 바쳤다. 곧 天子 앞에 끌려갔다. 天子는 恩勅을 내리고 보는 앞에서 풀어주었다. 19日 (왜 사신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24日 낙양을 출발했다.²⁶⁾

660년 9월 12일 석방되어 10월 16일 낙양에 도착해 앞서 헤어졌던 일행들을 만났다. 그리고 11월 1일 蘇定方에게 잡힌 百濟王 이하 太子 隆 등 여러 왕자 13人 大佐平 沙宅千福과 國弁成 이하 37인, 모두 50人을 朝堂에 바쳐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왜 사절단은 귀국하여 그 소식을 왜국에 전할 것이다.

당이 백제를 단 10일 만에 멸망시켰다는 소식은 왜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다. 역사상 당제국 만큼 음모와 폭력으로 일관했던 중원의 나라는 없었다. 모두 정복의 대상이었고, 거기에는 앞뒤 따위는 없었다.

26)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6年(660) 7月 조, “伊吉連博德書云. 庚申年 八月. 百濟已平之後. 九月十二日. 放客本國. 十九日. 發自西京. 十月十六日. 還到東京. 始得相見阿利麻等五人. 十一月一日. 爲將軍蘇定方等所捉百濟王以下. 太子隆等諸王子十三人. 大佐平沙宅千福. 國弁成以下卅七人. 并五十許人奉進朝堂. 急引趨向天子天子恩勅. 見前放著. 十九日. 賜勞. 廿四日. 發自東京”

이미 파미르 너머 중앙아시아의 서돌궐, 몽골리아의 동돌궐, 티벳 고원 東北 언저리의 토욕혼, 투르판 분지의 고창국, 타림분지의 오아시스 국가들이 당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660년 당은 신라를 향도로 삼아 백제를 멸망시켰다. 신라인들은 왜국으로 가는 항로도 어느 정도 알았다. 백제가 아직 당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시기에 왜국은 나당연합군을 백제에 묶어 놓기 위해서 부흥군을 원조해야 했다.

IV. 倭의 백제부흥전쟁 원조

蘇定方이 백제에서 주력군을 당으로 철수시키자 백제에서 부흥전쟁의 불길이 치솟았다.²⁷⁾

660년 9월 1일 백제에서 達率 某某, 沙彌, 覺從 등이 왜 조정에 도착했다. 그들은 백제인들이 부흥전쟁을 일으켜 나당연합군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신 등이 부흥군을 이끌고 사비 도성로 행군하여 나당연합군을 몰아내고 그곳을 탈환하였고, 지금 지키고 있다고 했다. 복신의 성공적인 군사 활동을 강조했다.

660년 7월 이후 무기가 소진되었고, 봉(楸)을 들고 싸우고 있다고 했다. 신라군에게 무기를 노획하여 싸워 사비도성을 탈환하고 지키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다.²⁸⁾

27) 본장 이하의 글은 다음의 글을 바탕으로 했다. 서영교, <倭의 百濟 援助와 蘇定方の 平壤城 撤軍> 《大丘史學》 117, 2015.

28)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6년(660) 9월 조, “九月己亥朔癸卯. 百濟遣 達率. <闕名>沙彌覺從等來奏曰. <或本云. 逃來告難>今年七月. 新羅恃力作勢不親於隣. 引搆唐人. 傾覆百濟. 君臣總俘. 略無唯噍類. <或本云. 今年七月十日. 大唐蘇定方率船師軍于尾資之津. 新羅王春秋智率兵馬軍

10월 복신이 왜 조정에 사신을 파견하여 군사지원과 왕자 풍장(부여풍) 송환을 요청했다. 그리고 포로로 잡은 당나라 병사 100명을 보여 주었다. 희망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제명천황은 백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²⁹⁾

660년 12월 제명천황은 백제를 위해 難波(오사카)에서 무기를 모았다. 그리고 백제로 병력과 물자를 보낼 수 있는 배를 건조하게 하였다.³⁰⁾ 다음해인 661년에 들어서면서 백제부흥군의 전력이 강해졌다.

[懸慶]6년(661)에 이르러 복신의 도당이 점점 증가하여 강의 동쪽 땅을 침탈하였으므로, 웅진의 당나라 군사 1천 명이 가서 적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적에게 격파 당하여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 전투의 패배 이후 웅진으로부터 구원병의 요청이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그 당시 신라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아 군마를 징발할 수가 없었으나, 그들의 애타는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드디어 군사를 파견하여 주류성을 포위하였다. 적은 우리 군사가 적은 것을 알고 나와 공격하여, 군마는 크게 손상당했고,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되돌아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쪽 지방의 여러 성들이 일시에 반란을 일으키고 복신에게 복속하니, 복신이 승세를 타고 다시 府城을 포위하였다. 이에 따라 웅진으로 가는 길이 즉시 차단되어 소금과 된장이 떨어졌으므로, 건장한 청년들을 모집하여 다른 길로 몰래 소금을 보내 곤핍해진 그들을 구원하였다.³¹⁾

于怒受利之山. 夾擊百濟. 相戰三日. 陷我王城. 同月十三日. 始破王城. 怒受利山. 百濟之東境也>於是西部恩率鬼室福信赫然發憤據任射岐山. <或本云. 北任叙利山>達率餘自進據中部久麻怒利城. <或本云. 都々岐留山>各營一所誘聚散卒. 兵盡前役. 故以倍戰. 新羅軍破. 百濟奪其兵. 既而百濟兵翻銳. 唐不敢入. 福信等遂鳩集同國. 共保王城. 國人尊曰佐平福信. 佐平自進. 唯福信起神武之權. 興既亡之國”

29)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6년(660) 10월 조

30)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6년 12월 丁卯 조

31)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671) 조 답설인귀서

661년에 이르자 복신 회하의 백제인 숫자가 늘어났고, 금강의 동쪽으로 진출했다. 그러자 웅진부성의 당나라 군사 1천이 출동했다가 전멸했다. 주류성을 포위했던 신라군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자 백제 남부의 여러 성들이 복신에게 복속했다. 당의 웅진부성은 고립되었다. 부흥군의 득세는 왜의 원조와 무관하지 않다.

661년 8월 백제에 대한 왜의 병력과병과 물자 보급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거듭’하여 무기와 식량을 백제로 보냈다고 한다(仍送兵杖五穀).³²⁾ 이는 이전에도 兵杖과 五穀을 백제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선박을 이용한 왜의 보급은 빠르고 많은 물자를 운반할 수 있었다.

9월 부여풍이 왜병 5천을 이끌고 백제를 향했다. 그는 복신으로부터 백제의 국정을 위임 받았다.³³⁾ 왜의 지원은 백제부흥군의 세력 확장의 연료였고, 661년 평양성 전투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661년) 6월에 이르러 선왕(태종무열왕)이 돌아가시자 장례를 겨우 끝냈는데, 상복도 미처 벗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군사를 웅진으로 보내지 못하였던 바, 황제의 칙서가 내려 군사를 북방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 때, 함자도 총관 유 덕민 등이 왔는데, 그들은 신라로 하여금 평양으로 군량을 운반하게 하라는 황제의 칙명을 전하였다. 이 때 웅진에서 사람을 보내와 부성이 고립되어 위태롭다는 사정을 자세히 전하였다. 유 총관이 나와 함께 일을 처리하면서 스스로 ‘만약 먼저 평양으로 군량을 보낸다면, 웅진 길이 차단될 것이오, 웅진 길이 차단된다면 그 곳에 주둔하고 있는 당 나라 군사가 바로 적의 손아귀에 들어 갈

32)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即位前記齊明天皇 7年(661) 8월 조 “八月. 遣前將軍大華下阿曇比羅夫連, 小華下河邊百枝臣等, 後將軍大華下阿倍引田比羅夫臣, 大山上物部連熊, 大山上守君大石等, 救於百濟, 仍送兵杖五穀, 或本續此末云, 別使大山下狹井連檳榔, 小山下秦造田來津守護百濟.”

33)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即位前記齊明天皇 7年(661) 9월 조

것이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총관은 드디어 나와 동행하여 우선 웅산성을 공격하였다. 웅산을 점령하고 이어 웅진에 성을 쌓고, 웅진 길을 개통시켰다.³⁴⁾

김춘추가 사망한 661년 6월 당고종이 문무왕에게 평양으로 군대와 물자를 보내라고 독촉했다. 그렇지만 신라가 평양으로 모두 보내면 웅진의 당나라군이 전멸할 것이 확실했다. 신라에서 웅진으로 가는 보급로를 뚫어야 했고, 시간이 소요되어 평양행은 지체되었다. 이는 혹독한 겨울에 고구려와 전쟁을 하고 있던 평양의 당나라 군대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³⁵⁾ 12월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당은 보루 2개를 잃었다. 밤에 당 병사들이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한다.³⁶⁾ 662년 2월에 가서의 신라의 보급품이 평양에 일부 도착하지만 당군은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였고, 그 달에 철수한다.

평양에서 蘇定方の 군대가 물러나자 웅진부성에 있는 劉仁軌에게 철수를 권유하는 당 고종의 勅書가 내려왔다.³⁷⁾ 그러나 劉仁軌는 당이 철수가 곧 고구려의 생존으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³⁸⁾ 그는 당 조

34) 《삼국사기》 권7, 文武王 11년 답설인귀서

35)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드디어 소정방의 말을 전하였다. 내가 명을 받아 萬里의 푸른 바다를 건너 적을 치러 배로 해안에 이른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대왕의 군사가 이르지 않으니 식량을 이을 길이 없어 위태로움이 심합니다. 왕께서는 조치하여 주시요!”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 and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p.282.

36)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即位前紀齊明天皇 7年(661) 12月 조

37) 《資治通鑑》 卷200, 唐高宗 龍朔 2年 7月條 “初, 仁願·仁軌等屯熊津城, 上與之勅書, 以平壤軍回, 一城不可獨固, 宜拔就新羅. 若金法敏借卿留鎮, 宜且停彼, 若其不須, 卽宜泛海還也.” 將士鹹欲西歸.”

38) 《資治通鑑》 卷201, 唐高宗 龍朔 2年 7월 조 “今平壤之軍既還, 熊津又拔, 則百濟餘燼, 不日更興, 高麗逋寇, 何時可滅!” 서영교, <唐高宗 百濟

정을 설득했고, 7,000명의 병력 증파를 관철시킨다. 白村江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V. 白村江 전쟁

백제 부흥군에게 군수품을 실어 날랐던 왜의 선박들은 백제의 전라도 남해안을 경유하여 서해안으로 북상해야 했다. 39)

百濟佐平 鬼室福信에게 화살10萬隻. 絲 500斤. 綿 1,000斤. 布 1,000端. 韋 1,000張. 稻種 3,000斛을 주었다.40)

662년 정월 왜국에서 출발한 배에 실린 대량의 군수물자가 주류성에 있는 복신에게 인도되었다. 왜에서 주류성에 이르는 해상 병참선을 유지하기 위해 백제는 중간 기착 항구 운영에 사활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군 2만 7천을 승선시킨 선단이 九州를 출발하기 1개월 전인 663년 2월 건조한 봄에 신라가 대공세를 재개했다.

… 新羅人이 百濟南畔 4州를 불태웠다[燒燔]. 또한(并) 安德 등 要地를 취했다.41)

撤兵 勅書의 背景> 《東國史學》 57, 2014.

39) 본장 이하의 글은 다음의 글을 바탕으로 했다. 徐榮教, <白江戰鬥와 新羅> 《歷史學報》 226, 2015.

40)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元年(662) 정월 丁巳 조 “賜百濟佐平鬼室福信矢十萬隻. 絲五百斤. 綿一千斤. 布一千端. 韋一千張. 稻種三千斛”

41)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春2월 乙酉朔 丙戌 조 “…新羅人燒燔百濟南畔四州. 并取安德等要地.”

여기에서 并은 공간이 다른 두 곳을 병렬 시키는 접속사로 보인다. 百濟南畔 4州 燒燔과 安德 등 要地 점령 두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것을 의미한다. 663년 2월 지리산 운봉고개를 넘어온 신라장군 天存은 북상하여 전략적 거점인 德安(논산)을 점령했고, 그곳에 있다가 8월 주류성을 공략하러 온 신라군 주력과 합류했다. 반면 김유신의 동생인 金欽純과 그의 부대는 남원에서 순천 방향으로 남하하여 건조한 봄 2월부터 百濟南畔 4州에 거대한 방화 작전을 실행했다.⁴²⁾

伊吉連博德書에 659년 백제 남쪽해안(百濟南畔)의(之) 섬(鳴)에 倭遣唐船이 정박한 기록이 보인다.⁴³⁾ 왜선들은 ‘西南進’하여 吳唐之路로 향했다. 그렇다면 百濟南畔 4州는 지금의 전라남도 해안지방이 확실하다.

고대의 배는 규모가 작아 항해 중 육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약 3만의 병력을 운반하는데 약 1000척의 배가 동원되었고 개미떼처럼 몰려 다녔다. 왜군과 백제부흥군은 이동의 편의를 위해 필사적으로 중간 기착지를 확보·유지하려 하였고, 김흠순은 여기에 타격을 주려 했다.

김흠순은 왜의 항로 유지에 필수적인 중간기착지들의 배후지를 황폐화시켜 왜군이 현지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을 파괴했다. 왜군이 대부분의 물자를 본국에서 실어오게 하여 진군 속도를 지연시키려 했

42) 다음은 위의 일본 기록과 대칭되는 우리 기록이다. 《三國史記》 권6, 문무왕 3년(663) 2월 조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거창), 斬首七百餘級. 又攻居勿城(남원)·沙平城(순천)降之, 又攻德安城(논산), 斬首一千七十級.”

43)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5년(659) 7월 戊寅(3일) 조 부기 “伊吉連博德書曰. 同天皇之世. 小錦下坂合部石布連. 大山下津守吉祥連等二船. 奉使吳唐之路. 以己未年七月三日發自難波三津之浦. 八月十一日. 發自筑紫六津之浦. 九月十三日. 行到百濟南畔之鳴. 々名母分明. 以十四日寅時. 二船相從放出大海 … 潤十月一日. 行到越州之底. 十月十五日乘驛入京.”

던 것으로 보인다. 황폐화 작전은 백촌강에 투입될 왜군의 숫자와 보급량을 잠식하고 항해속도를 지연시켰다.

663년 3월 왜국을 출발한 前·中·後軍 2만 7천 가운데⁴⁴⁾ 8월 백촌강 전투에 투입된 것은 中軍 1萬餘에 불과했고,⁴⁵⁾ 백촌강까지 오는데 5개 월 여가 걸렸다.

한편 당 함대도 백제로 향했다. 淄(산둥 치박)·靑(산둥 청주)·萊(산둥 내주)·海(강소성 연운항) 출신 선원과 병사 7천 명이 승선하고 있었다.⁴⁶⁾ 663년 5월 당나라 함대가 덕물도에 도착한 것이 확인된다.⁴⁷⁾ 그들은 곧장 웅진부성에 있는 나당연합군과 연결하였다. 그 중요한 시기에 주류성에서 정변이 있었다.

百濟王 豐璋 福信이 謀反하려 하는 마음이 있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을 뚫고 가죽으로 묶었다. 이때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福信의 죄가 이미 이와 같으니 목을 베는 것이 좋겠는가? 이에 達率 德執得이 말했다. 이 악독한 반역죄인은 풀어주어서는 안됩니다. 福信이 執得에게 침을 뱉으며 썩은 개(腐狗)와 같은 어리석은 놈(癡奴). 왕이 健兒들로 하여금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금에 절였다.⁴⁸⁾

44)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663) 3월 조, “前將軍 上毛野君稚子. 間人連大盖. 中將軍 巨勢神前臣譯語. 三輪君根麻呂. 後將軍 阿倍引田臣比羅夫. 大宅臣鎌柄 등을 과건하여 병력 2만 7천인을 이끌고 新羅를 치게 했다.”

45)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663) 8월 13일 조.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663) 8월 28일 조.

46) 《資治通鑑》卷200, 唐高宗 龍朔 2년(662) 7월 조

47) 《삼국사기》 문무왕 3년(663) 5월 조, “詔遣右威衛將軍孫仁師率兵四十萬, 至德物島, 就熊津府城.”

48)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663) 6월 조, “百濟王豐璋嫌福信有謀反心. 以革穿掌而縛. 時難自決. 不知所爲. 乃問諸臣曰. 福信之罪既如此焉. 可斬不. 於是. 達率德執得曰. 此惡逆人不合放捨. 福信即唾於執得曰. 腐狗癡奴. 王勒健兒. 斬而醢首.”

백제 부흥운동을 지휘한 복신의 죽음은 병력운영에 커다란 공백을 만들었다. 그의 부재는 방어체계 약화로 이어졌다. 6월에 신라는 이 기회를 타서 주류성으로의 직공을 결정했다.⁴⁹⁾ 왜의 함대가 주류성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라는 왜군이 주류성과 연결되기 이전에 먼저 도착하여 이를 차단하려 했다.

용삭 3년(663) 계해에 백제의 여러 성에서 비밀리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그 두목은 두솔성(주류성)에 웅거하면서 왜에게 병력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대왕이 직접 유신, 인문, 천존, 죽지 등 장군들을 거느리고 7월 17일에 토벌 길에 올랐다. 그들은 웅진주에 가서 진수관 유인원의 군사와 합세하여 8월 13일 (나당연합군이) 두솔성(주류성)에 이르니 백제인들이 왜인과 함께 나와 진을 쳤다. 우리 군사들이 힘껏 싸워 대파시키니 그들이 모두 항복하였다.⁵⁰⁾

7월 17일에 문무왕이 장군들을 이끌고 출발했고, 얼마 후에 웅진주에서 당나라 군대와 합세했다. 신라 육군 주력 수만이 종군했던 것으로 보인다. 8월 13일 나당연합군이 주류성 앞에 도착했고, 백제인과 왜인들이 주류성문을 열고 나와 진을 치고 대치했다. 8월 13일 신라 육군이 상륙을 위해 白沙에 와 있던 왜 선단을 몰아내어 주류성과의 연결을 원천봉쇄했고, 8월 17일 신라육군은 주류성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백제와 왜 연합군을 격파하여 주류성을 포위했다.

동시에 당 함대 174척이 백촌강에 들어와 江岸을 장악했다.⁵¹⁾ 주류성 함락은 시간 문제였다. 10일 후인 8월 27일 왜의 함대가 백촌강으

49)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8월 甲午(일) 조, “新羅以百濟王斬己良將. 謀直入國先取州柔.”

50)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八月十三日, 至于豆率城. 百濟人與倭人出陣, 我軍力戰大敗之, 百濟與倭人皆降.”

51)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8월 17일 조, “戊戌(17일). 賊將至於州柔繞其王城. 大唐軍將率戰船一百七十艘. 陣烈於白村江.”

로 들어섰다. 왜 수군 선발대가 공격을 시작했다. 당 수군은 진을 견고히 하고 백강수역에서 나아가지 않았다.⁵²⁾ 방어만 하여 전력소모를 피하고 결전을 기다렸다. 江口를 당 함대가 장악하고 있는 한 왜군은 주류성의 포위를 풀 수가 없다.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8월 28일 조를 보자

- ① 28일(己酉)日本の 諸將과 百濟王이 氣象을 관찰하지 않고, 서로 말했다. 우리가 다투어 먼저 선수를 친다면 저쪽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재차 日本의 伍가 어지러운 中軍의 卒을 이끌고 가서 大唐의 견고한 진을 친 軍(堅陣之軍)을 공격했다.
- ② 그러자 大唐이 곧 左右에서 배를 둘러싸고 싸웠다. 눈 깜짝할 사이에 官軍(왜수군)이 패배하였다. 물속에 뛰어들어 익사하는 자가 많았다. 배키를 돌려도 작동되지 않아 뱃머리를 돌릴 수 없었다(艫舳不得廻旋). 朴市田來津이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수십 사람을 죽이고 마침내 전사하였다. 이때 百濟王 豐璋은 數人과 함께 배를 타고 高麗로 도주했다.⁵³⁾

왜 수군 1만은 廬原君臣이 이끌고 있었다.⁵⁴⁾ ① 왜 수군은 中軍이었다. 663년 3월 파병 명령을 받은 2만 7천 명을 이끈 전 중 후 장군

52)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8월 27일 조, “戊申(27일). 日本船師初至者. 與大唐船師合戰. 日本不利而退. 大唐堅陣而守.”

53)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8월 28일 조, “己酉(28일)日本諸將與百濟王不觀氣象. 而相謂之曰. 我等爭先彼應自退. 更率日本亂伍中軍之卒進打大唐堅陣之軍. 大唐便自左右夾船繞戰. 須臾之際. 官軍敗績. 赴水溺死者衆. 艫舳不得廻旋. 朴市田來津仰天而誓. 切齒而嗔殺數十人. 於焉戰死. 是時百濟王豐璋與數人乘船逃去高麗.”

54)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8월 甲午 조, “新羅以百濟王斬己良將. 謀直入國先取州柔. 於是. 百濟知賊所計. 謂諸將曰. 今聞. 大日本國之救將廬原君臣率健兒萬餘. 正當越海而至. 願諸將軍等應預圖之. 我欲自往待饗白村.”

이 있었고, 中將軍은 巨勢神前臣譯語, 三輪君根麻呂이었다.

①에서 왜는 氣象도 고려하지 않고 당 수군을 공격했다. 부여풍과 왜장들은 우려감을 공유했을 것이다. 이대로 후퇴한다면 주류성은 함락될 것이다. 당장 싸워서 당 함대부터 격파해야 했다. 불리해도 결전을 피할 수 없었다. ②에서 “뱃머리(艫)와 키(舳)를 돌릴 수 없었다.”고 한 것을 통해 기상(風向)의 변화가 왜군에게 불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선이 돌격해오자 당군이 좌우에서 둘러싸 포위했다. 《資治通鑑》 卷201, 唐高宗 龍朔 3년(663) 9월 조는 결과를 이렇게 전한다.

“왜병을 백강입구에서 만나 4번 싸워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빛냈고, 바닷물도 모두 붉게 되었다.”⁵⁵⁾

당군의 불화살이 몰려있는 왜 선단에 떨어졌고, 400척에 번졌다. 10일 후인 9월 7일 주류성이 함락되었다.⁵⁶⁾ 백제는 한반도에서 그 명맥조차 사라졌다. 고구려와 왜 사이의 연결 고리가 사라졌다. 고구려가 고립되었다.

VI. 맺음말: 고구려-왜의 連和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여 10일 만에 멸망시켰고, 왜국은 백제의 부흥에 사활을 걸었다.

55) 《資治通鑑》 卷201, 唐高宗 龍朔 3년(663) 9월 조, “遇倭兵於白江口, 四戰皆捷, 焚其舟四百艘, 煙炎灼天, 海水皆赤.”

56)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년(663) 9월 7일 조, “九月辛亥朔丁巳(7일). 百濟州柔城始降於唐.”

660년 7월 당수군은 금강에 상륙하여 의자왕 등을 포로로 잡고 단 10일 만에 백제를 멸망시켰다. 당의 수군전력에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 증명되었다. 이어 661년 7월 11일 당수군은 대동강에 상륙하여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포위했다.⁵⁷⁾ 수로가 닿는 곳이라면 당은 적국의 수도가 어디라도 기습하여 멸망시키거나 포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섬나라 왜국도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전략적 의식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눈앞에 닥쳐온 전쟁과 그것에 대한 경험이었다. 663년 8월 백촌강 전쟁을 치른 후 왜에 대한 당 장군들의 생각도 확연히 달라졌다. 662년 2월 평양에서 蘇定方の 군대가 철수하자 웅진부성의 당군 철수를 권유하는 唐高宗의 勅書가 내려왔다.⁵⁸⁾ 劉仁軌의 답변은 이러하다.

지금 평양을 공격하던 군대가 이미 회군하였는데 (백제의)웅진을 또 버린다면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곧 일어날 것이니 고구려의 무리들은 언제 멸망시킬 것인가.⁵⁹⁾

劉仁軌는 당이 백제에서 철수하는 것이 곧 고구려의 생존으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 백촌강 전쟁 후 그의 언급은 이러하다.

57) 《資治通鑑》 卷200, 唐高宗 龍朔 元年(661) 7월 조, “七月, 甲戌(11일), 蘇定方破高麗於溟江, 屢戰皆捷, 遂圍平壤城.”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征討5 “(龍朔元年) 八月, 蘇定方破高麗之衆於溟江, 頻戰皆捷, 奪其馬邑山, 因山爲營, 遂爲平壤城.” 《舊唐書》 권4, 高宗本紀 상, “(龍朔二年) 三月甲申, … 蘇定方破高麗於葦島, 又進攻平壤城, 不克而還.”

58) 《資治通鑑》 卷200, 唐高宗 龍朔 2년(662) 7월 조 “初, 仁願·仁軌等屯熊津城, 上與之勅書, 以平壤軍回, 一城不可獨固, 宜拔就新羅. 若金法敏借卿留鎮, 宜且停彼, 若其不須, 卽宜泛海還也. 將士鹹欲西歸.”

59) 《資治通鑑》 卷201, 唐高宗 龍朔 2년(662) 7월 조, “今平壤之軍既還, 熊津又拔, 則百濟餘燼, 不日更興, 高麗逋寇, 何時可滅!”

(유인계가 말했다) 폐하(당고종)께서는 그들(당나라 병사)을 해외에 남겨두어 고려를 없애려고 하십니다. 고려와 백제가 이전부터 서로 무리를 지어 돕고, 倭人은 비록 멀리 있지만 역시 (고려·백제와)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만약 진수하는 병사가 없다면 다시 한 개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⁶⁰⁾

664년 10월 劉仁軌는 唐高宗에게 웅진도독부의 병력 증파를 요청했다. 백촌강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는 고구려, 백제, 왜의 연화를 우려했다. 그의 주장은 백제가 왜와 고구려 가운데 다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백제가 고구려와 왜의 도움으로 곧 부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구려와 왜 중간에 위치한 당의 백제 주둔군 전력의 일정 유지되어야 그 연화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왜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日本書紀》에서 왜가 백제 부흥군을 원조하는 것이 고구려를 돕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662년 3월)이 달에 唐人과 신라인이 고려를 공격하여 고려가 우리(倭國)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므로 거듭(仍) 軍將을 파견하여 疏留城에 거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唐人은 고려의 남쪽 경계를 침략하지 못하고 신라도 고려 서방의 城壘(성루)를 함락시키지 못했다.”⁶¹⁾

662년 3월 소정방이 평양성에서 철수한 1달 후였다.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던 고구려의 요청으로 왜가 거듭 軍將을 疏留城에 파견하였고, 그 결과 웅진도독부의 당군이 고구려 남쪽 경계로 올라가지 못

60) 《資治通鑑》 卷201, 唐高宗 麟德 원년(664) 10월 조, “陛下留兵海外, 欲殄滅高麗. 百濟·高麗, 舊相黨援, 倭人雖遠, 亦共爲影響, 若無鎮兵, 還成一國.”

61)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元年(662) 3월 조, “是月, 唐人. 新羅人伐高麗. 々々乞救國家 仍遣軍將據疏留城 由是唐人不得略其南堺 新羅不獲輸其西壘”

했고, 신라도 고구려 서방 성과 보루들을 함락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해에 일본에서 고려를 구원하려 간 장수들이 백제의 加巴利濱 해안에서 불을 피웠다. ...⁶²⁾

위의 기록은 왜군의 선발대의 일부 병력이 661년 어느 시기에 고구려를 구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백제 가파리해안(카와리노하마)에 정박하여 불을 피웠다.⁶³⁾ 그들은 고구려로 간 것은 아니고 백제를 돕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이 결국 고구려를 돕는 것이라 믿었던 것 같다.⁶⁴⁾

고구려와 왜는 통일전쟁기에 면밀하게 서로 협조했다. 왜는 한반도에서 감행될 군사작전계획에 대해 고구려에 미리 통보 했다.

“계축(癸丑) 삭(朔)에 견상군(犬上君)은 고려에 급행(急行)하여 출병의 일을 고하고 돌아왔다.”⁶⁵⁾

663년 3월 왜군 2만 7천의 백제원조출병 이전에 이를 犬上君이 고구려에 통보했고 663년 5월에 왜국으로 귀국했다. 이로부터 90년 후인 753년 발해의 사절이 국서를 들고 일본을 방했을 때의 일이다.

62)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即位前記齊明天皇 7年(661) 是歲 条, “又日本救高麗軍將等, 泊于百濟加巴利濱而燃火焉.”

63) 여기에 대해 노태돈은 ‘고려 구원’이라는 표현은 《일본서기》편찬자의 해석과 의미 부여에 따른 서술이라고 보았다. 당시 왜는 고구려 전선에 참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실제 그러한 움직임은 없었다는 것이다.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 출판부, 2009, 169쪽.

64) 서영교, <倭의 百濟 援助와 蘇定方の 平壤城 撤軍> 《大丘史學》 117, 2015.

65)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년(663) 5월 条, “癸丑 朔. 犬上君<闕名>馳告兵事於高麗而還”

일본은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했다.⁶⁶⁾ 발해왕이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 ‘臣’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았다. 그러자 천황이 보관하고 있던 고구려 관계 옛 기록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구려는 평화기에 上表한 글을 보면 친애하는 형제와 같고 의롭기는 군신과 같다고 했다고 했다. 어떤 때에는 援兵을 청했고, 어떤 때에는 천조를 축하했다. 조빙의 변치 않는 법을 닦으며, 충성스러운 마음의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라고 한다.⁶⁷⁾

이러한 일본 측의 주장을 모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수당과 대결했던 고구려가 왜국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를 했고, 통일전쟁기 전략적 제휴를 위해 두 나라 사이에 사신이 적지 않게 오고 간 것은 인정할 수는 있겠다.

66) 《續日本紀》 卷10, 神龜 4年(727) 12月 丙申 条, “渤海郡者舊高麗國也. 淡海朝廷七年冬十月. 唐將李勣伐滅高麗. 其後朝貢久絶矣.”

67) 《續日本紀》卷19, 天平勝宝 5年(753) 6月 丁丑, “六月丁丑. 慕施蒙等還國. 賜璽書曰. 天皇敬問渤海國王. 朕以寡德虔奉寶圖. 亭毒黎民. 照臨八極. 王僻居海外. 遠使入朝. 丹心至明. 深可嘉尚. 但省來啓. 無稱臣名. 仍尋高麗舊記. 國平之日. 上表文云. 族惟兄弟. 義則君臣. 或乞援兵. 或賀踐祚. 修朝聘之恒式. 効忠款之懇誠. 故先朝善其貞節.”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資治通鑑》 《舊唐書》 《新唐書》 《日本書紀》
《續日本紀》 《國家珍寶帳》 《敦煌本 吐蕃歷史文書》

今西龍, 《百濟史 研究》 京城: 近澤書店, 1934.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문화사, 2005.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 출판부, 2009.

武田幸男, <新羅‘毗曇の亂’の一視覺>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東京: 平凡社, 1985.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東京: 塙書房, 1989,

森公章, 《白村江以後－國家危機と東アジア外交－》 東京: 講談社, 1988.

서영교, <蘇定方の 長槍歩兵과 對西突厥 전투> 《중국고중세사연구》15, 2006.

서영교, <황산벌 결전 직전의 국제정세> 《군사연구》 13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1.

서영교, <唐高宗 百濟撤兵 勅書の 背景> 《東國史學》 57, 2014.

서영교, <倭의 百濟 援助와 蘇定方の 平壤城 撤軍> 《大丘史學》 117, 2015.

徐榮教, <白江戰鬪와 新羅> 《歷史學報》 226, 2015.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 東京: 岩波書店, 1971.

朱甫暎,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韓國學論集》 20, 1993.

朱甫暎, <7세기 羅唐關係의 始末> 《嶺南學》 20, 2011.

정병준, <吐蕃의 吐谷渾 併合과 大非川 戰鬪: 唐朝의 韓半島 政策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218, 2013.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 and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9.

ABSTRACT

The Silla Unified War & the Japanese Interaction

Seo, Young-kyo

The Baekje and Goguryeo kingdoms joined forces against the Silla and went on the offensive, taking Taeya-song (modern Hapchon) in 642 and around 40 border fortresses. The following year Baekje captured Tanghang-song, which was a vital Silla link with China. The Silla, though, now had concrete support from the Chinese Tang dynasty who saw an opportunity to advance their interests in Korea and conquer the weakened Baekje and Goguryeo kingdoms. Baekje failed to tempt aid from Japan and could not prevent the fall of Sabi when the kingdom was attacked by land and sea in 660. A Silla army of 50,000 led by the general Kim Yushin and a naval force of 130,000 men sent by the Tang emperor Gaozong proved more than enough to crush the Baekje army. Uija (r. 641-660), who turned out to be the last Baekje king, was taken prisoner and shipped off to China along with 12,000 of his compatriots.

There was brief hope of a revival when rebel forces finally persuaded the Yamato of Japan to intervene with army. Over the next few years rebel Baekje forces did harass cities and even laid siege to Sabi and Ungjin but they were beset with leadership in-fighting and were finally crushed in 663.

The Japanese came to the aid of the suffering Paekche, who were being attacked by both Silla and Tang Dynasty China. Spanning from 660 to 663, with the final, devastating naval defeat occurring in 663, the Battle of Paekchon River marked the ending of Japanese interaction in Korea. The Silla eventually took over the entire peninsula and became known as the Unified Silla Kingdom

Key words : Kim Choon-choo, Nakano-Oue, Nakatomino-Kamatari, Takamukono-kuromaro, Ikimurajino-Hakadoku, Saimei Ten-nou, General Su-Tingfang, Paekchon River, South Sea coast of the Baekje

논문 투고일 : 2016. 11. 14. 심사 완료일 : 2016. 12. 2. 게재 확정일 : 2016. 12. 3.